

MIBK, 공급타이트로 강세 유지

금호P&B화학 정기보수 및 미국 페놀공장 폭발로 수급에 차질

2003년 3월 초 MIBK(Methyl Isobutyl Ketone)의 국내 평균가격은 톤당 145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12월 12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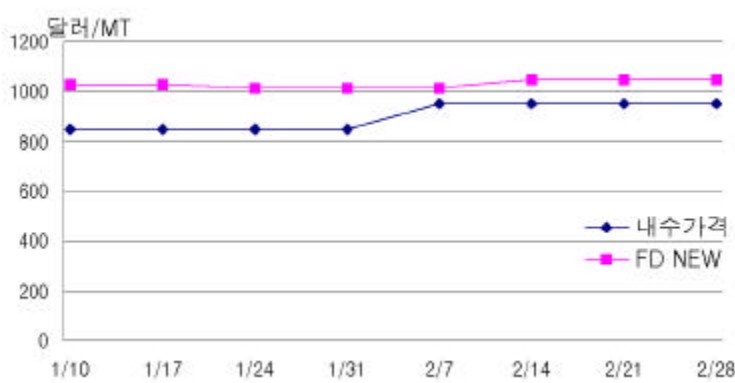
2002년 하반기 이후 MIBK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9월 세계 최대의 페놀 공급기업 중 하나인 미국 Ineos의 Phenol 공장 폭발사고로 페놀과 아세톤 공급에 차질이 생겨 Down Stream인 MIBK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일한 생산기업인 금호P&B화학이 촉매교체로 인한 정기보수가 있어 국내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한때 품귀현상을 낳기도 했다.

MIBK 가격은 2002년 말부터 국제정세가 불안하게 돌아가자 프로필렌과 아세톤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부담이 증가했고 이러한 시황에 미국 폭발사고 및 정기보수가 맞물려 최근까지 가격이 상승곡선을 탈 수 있었다.

MIBK 가격추이



상반기 MIBK 가격은 원료인 아세톤의 가격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인상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원재료 가격상승률이 아직까지 제품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해 내수가격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MIBK의 국제가격은 2월 이후 잠시 정체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3월7일 FD NWE 가격은 1050-1080달러로 2월 말 가격보다 소폭 상승했다.

MIBK의 2002년 국내수요는 1만8000톤으로 조사됐고 페인트용이 1만1700톤, 고무합성 원료용이 3600톤, 전기·전자 및 기타용 약 1800톤 정도가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 03/ 21>